

I . 문제의 제기

1. 고령화 실태 및 향후 전망

- 일본은 이미 200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, 고령자를 세분화할 필요성도 대두됨(<그림 1> 참조).
 - 일본의 고령화율은 1970년 7%(고령화사회), 1994년 14%(고령사회), 2005년 20%(초고령사회)를 넘었고, 2011년 현재 23.3%(2,980만명)를 기록하여 고령인구, 고령화율 모두 역대 최고치
 - * ‘일본의 장래 추계인구’(국립사회보장·인구문제연구소, 2013.1)에 의하면, 2026년에는 30%를 초과하고, 2060년에는 39.9%에 달하여 인구 약 2.5명당 1명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됨.
 - 이에 따라 고령자를 다시 前期고령자(65~74세)와 後期고령자(75세 이상)로 세분화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바, 일본 후생노동성은 75세 이상 고령자 전원과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운데 장애가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‘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제도’를 시행 중
 - * 동 제도는 전체 의료보험 가입자의 11.4%(’12년 3월 현재 1,473만명), 환자부담금 10%(타 의료보험제도는 30%), 의료비재원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약 50%, 젊은층이 약 40%를 부담